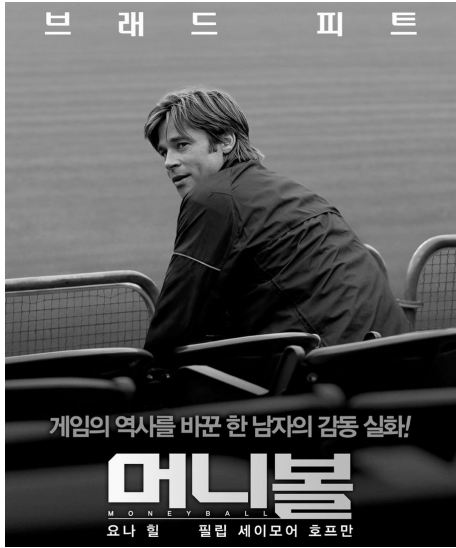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년 3월 11일자 칼럼

지금 다시 '머니볼'을 본다면



140년 넘는 역사를 거치면서 메이저리그는 숏한 변화를 거쳤다. (중략) '라이브볼 시대'가 10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야구는 또 한번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정확히 언제 누가 주도한 흐름이라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21세기 이후의 야구를 '머니볼 시대'라고 부르다 해도 크게 거부감이 없다. (중략) '머니볼'은 지난 2003년 마이클 루이스가 펴낸 뒤 아마존닷컴에서 3년 연속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책의 제목에서 온 말로 인식된다. 그래서 머니볼의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마이클 루이스의 책을 읽는 것이고, 더 손쉬운 방법은 같은 제목의 영화를 보는 것이다.

영화 '머니볼'은 할리우드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야구영화 중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된 작품이다. 마이클 루이스의 책이 (㉠)경영서적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한국어로 번역되고, 이 책을 원작으로 상업 영화가 만들어져 국내 개봉까지 이뤄진다는 소식은 당시 메이저리그 팬들을 꽤 흥분시킬 만한 것이었다.

㉡"자신이 평생 해 온 경기에 대해 우린 놀랄 만큼 무지하다." 영화는 미키 맨틀의 명언이 등장한 뒤, 조니 데이먼과 로저 클레멘스의 맞대결 장면으로 시작된다. 2001년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오클랜드가 먼저 2연승을 거두고도 뉴욕 양키스에 내리 3연패 해 아쉽게 탈락하는 순간. 1억 달러를 넘게 쏟아 부은 부자 구단의 벽에 막힌 예산 4천만 달러짜리 구단의 애기라는 점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영화의 토대가 되는 오클랜드의 2002년은 여러 면에서 역사에 남을 해였다. 빌리 빈 단장은 제이슨 지암비, 이스링하우젠, 데이먼 등 투타의 주축을 잃고도 빈틈을 절묘하게 메워 팀을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1위로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저평가된 선수들의 장점을 포착해 효율적으로 재활용했고, 선수를 평가하는 혁신적인 철학을 정립했다. 여기에 20연승을 이루는 과정마저 현실이 영화를 능가할 정도로 극적인 요소까지 갖춘 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묘사되는 선수가 스캇 해티버그이다. 이렇다 할 전성기랄 것 없이 30대 초반에 은퇴할 것처럼 보였던 ㉢타율이 그리 높지 않은 백업 포수지만 그의 ㉣출루 능력에 주목한 빌리 빈 단장이 과감하게 1루수를 맡겨 지암비를 일정 부분 대체하도록 했다. 새 계약서를 받아든 채 가족과 말없이 기쁨을 나누는 해티버그는 결국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는 20연승의 마지막 끝내기 홈런까지 기록한다. 오클랜드를 떠난 후 신시내티에서도 잠시 준수한 활약을 펼치면서 해티버그는 빌리 빈 단장 덕분에 30대 후반까지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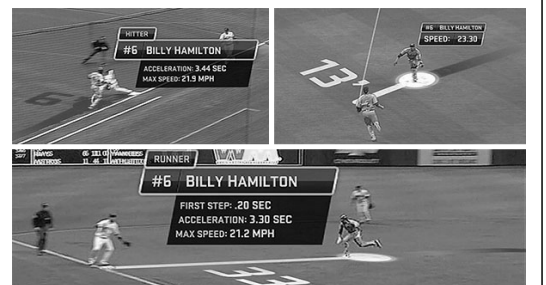
해티버그와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는 선수는 채드 브래드포드다. ㉤극단적 언더핸드 투구폼에 느린 변화구를 가졌지만 ㉥공의 위력이 약해 주목받지 못하던 브래드포드는 오클랜드로 이적한 뒤 핵심 불펜으로 자리 잡았다. 영화에서 "3백만 달러 급 선수인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 지금은 23만 7천 달러만 주면 데려올 수 있다"는 설명이 붙는다. 실제 오클랜드에서 23만 5천 달러의 연봉을 받은 이후 볼티모어를 거치며 3백만 달러 수준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기에 브래드포드에게는 빌리 빈이 인생의 은인일 수밖에 없다. 볼티모어가 훗날 비슷한 유형의 정대현을 영입하려 했던 것도 브래드포드의 영향이라고 본다.

연출을 맡은 베넷 밀러 감독은 실제 경기에서 일어난 상황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묘사하길 원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극적인 사실을 잘못된 연출로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해티버그를 비롯해 데이비드 저스티스와 에릭 사베스 등 선수 역할을 맡은 배우들도 실존 인물과 닮은꼴로 구성했다. 주연 브래드 피트도 대중들이 갖고 있던 빌리 빈 단장의 지적이고 단호한 이미지를 제대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답게 경기 장면도 당시 중계 화면과 직접 촬영한 장면을 위화감 없이 교차 편집해 사실감을 높였다. 연출진은 이 영화가 비록 2002년을 다루는 것이지만 분명히 '시대극'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고증 작업에도 애썼다고 한다. 해마다 달라지는 유니폼의 디테일은 야구팬들이 알아채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히 구현하려 공들였고, 자유분방한 오클랜드 관중들의 복장이나 소품에 부착된 다양한 시대의 오클랜드 로고까지 신경 쓴 덕에 리얼리티가 살아날 수 있었다. 빌리 빈 단장의 현역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에선 면발치에서 등장하는 현수막 하나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중략) 현지에서는 아무 관심 없었지만 눈썰미 좋은 국내 야구팬들에게 포착될 만한 순간도 있다. 새 선수들로 야심차게 출발한 2002년 개막전에서 제레미 지암비가 안타를 기록할 때 살짜스치는 박찬호의 투구 모습이 그것이다. 실제 박찬호의 텍사스 데뷔전이었는데 아쉽게 5이닝 6실점 하며 패전 투수가 됐다. 해티버그 기용을 끈질기게 거부한 하우 감독의 라인업에 서튼이라는 이름도 얼핏 보인다. KBO리그

에서 뛰었던 바로 그 래리 서튼이다.

영화적인 평가와는 별도로, 야구 용어로 자리 잡은 '머니볼'은 결국 적은 투자로 큰 성과를 얻기 위한 ㉦발상의 전환에 초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간혹 머니볼과 세이버메트릭스를 동격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지만 통계와 숫자는 그저 거들 뿐이다. 당시 오클랜드 팬의 의견을 빌리자면, "빌리 빈이라는 인물의 ㉧과감한 결단력과 선수를 보는 감각, 여기에 구단주의 입김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철학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 환경까지 총체적으로 결합한 신화가 머니볼"이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다. 머니볼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새로운 공식에 열광하며 각종 기록을 집요하게 분석했던 흐름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선수와 공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투구 추적 시스템이나 트랙맨, 스탯캐스트 자료를 재가공한 데이터와 이를 근거로 한 이론은 초기의 세이버메트릭스에서 보여주지 못한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다만,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숫자로 야구의 대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변질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중략) 베넷 밀러 감독은 머니볼이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말하는 영화가 아니라는 소신을 밝히면서 야구에는 늘 인간적이고 신비한 면이 존재하며 이런 부분을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원작자 마이클 루이스 역시 ㉩남들이 보지 못한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머니볼의 매력이라고 했다. 선수들은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텍사스의 추신수는 "요즘 야구에서 데이터에 의존하는 부분이 과도하고 야구는 의외성의 경기"라는 철학을 드러냈다. 콜로라도의 오승환 역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더라도 코치의 경험을 통한 조언은 절대 무시될 수 없다고 했다.

빌리 빈의 머니볼은 2000년부터 4년 연속 디비전시리즈를 통과하지 못하며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고, 제레미 브라운처럼 잘못 뽑은 선수로 쓴맛을 본 적도 있다. 히어로즈에서 된 마이클 초이스도 오클랜드가 1라운드에서 선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 케이스다. 그래도 '머니볼'이 (중략)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여파가 2019년 현재 KBO 리그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데이터 야구가 ㉪좌우놀이 정도를 의미하던 과거에 비하면 상전벽해다. '머니볼 시대'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1. <보기>는 영화 ‘머니볼’에 대한 평론가와 네티즌의 평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이유를 자유롭게 쓰시오.

---



---

<보기>

★★★★ 9 내가 본 최고의 야구(소재) 영화 - 이동진 평론가

새로운 가치관을 들고 나와 기존과 싸우고 돌파해나가는 리더의 이야기로 봐도 충분하다. 야구는 거들뿐. - ipr\*\*\* 님

야구에 대한 지식영화가 아니라 한 사람이 좀 더 나은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옳다고 믿고 있는 전통을 깨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 \*\*\*컴퍼니with루이 님

2. ㉡~㉣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우리 사회 속 관련 사례 또는 자신의 직·간접적 경험이나 생각을 소개해 보시오.

---



---

<보기>

**좌우놀이(플레톤 시스템, platoon system)**  
좌타자가 우투수의 공을 더 잘 치고, 우타자가 좌투수의 공을 더 잘 친다는 **일반론**을 고려하여 상대 타자(투수)의 좌/우에 맞춰 타자(투수)를 교체하는 경기 운영 방법. 1990년대 라 루사 감독이 좌타자 전담용 교체투수를 두면서 대두되었다. 그러나 여러 요소의 복합적 작용을 고려해야 하는 현대야구에서는 좌/우에 따른 단순 타율이 통계적 의미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좌우놀이’에만 골몰하고 이를 고집하는 코칭스태프는 **데이터를 종합적·총체적으로 분석하기 귀찮아하는 무능한 운영자·경영자**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3. <보기>는 ㉤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글을 서술하시오.

---



---



---



---



---

<조건>

- **한 가지 수치의 높고 낮음**(예, 토익점수, 학점, 내신등급, 수능등급 등) 또는 **한 가지 데이터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음**(예, 남성이냐 아니냐, 초수생/졸업예정자이냐 아니냐, 30세 미만이나 아니냐, ○○출신이냐 아니냐 등)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거나 상황을 판단하면 논란이 생기는 사례나 상황을 하나만 제시하시오.(여기 나열된 예를 활용하여도 됨)
- 제시한 사례 또는 상황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4. 자신의 희망 대학·학과·직업·진로에 도달하기까지 있는 선발·경쟁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중요시되는 수치·데이터는 무엇인지 밝히고, 자신에게 그것이 부족함에도 본인이 해당 대학·학과·직업·진로를 성취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지(있을지) 자신만의 장점(미래에 확보할 장점)을 피력해 보시오.

※ 진로미정 등의 사유로 답을 쓰기 곤란한 학생은, ㉠~㉣를 (가) 또는 (나)로 적절히 분류만 해 보세요.

· 자신의 희망 대학·학과·직업·진로: \_\_\_\_\_

· (가)=일반적으로 중요시되는 수치·데이터: \_\_\_\_\_

· (나)=자신만의 장점(미래에 확보할 장점): \_\_\_\_\_

---

점검일: 2019년    월    일  
 담임교사 : \_\_\_\_\_ (서명)

**<예시 답안>**

1. <보기>는 영화 ‘머니볼’에 대한 평론가와 네티즌의 평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이유를 자유롭게 쓰시오.  
 책의 내용이 경영자, 관리자, 리더(지도자)의 보편적 자질과 덕목을 다루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경영서적으로 분류된 것 같다.

<보기>

★★★★ 9 내가 본 최고의 야구(소재) 영화 - 이동진 평론가

새로운 가치관을 들고 나와 기존과 싸우고 돌파해나가는 리더의 이야기로 봐도 충분하다. 야구는 거들뿐. - ipr\*\*\* 님

야구에 대한 지식영화가 아니라 한 사람이 좀 더 나은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옳다고 믿고 있는 전통을 깨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 \*\*\*컴퍼니with루이 님

2. ㉠~㉣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우리 사회 속 관련 사례 또는 자신의 직·간접적 경험이나 생각을 소개해 보시오.

(L) 수능국어 화법, 작문, 문법 공부를 수십 개월 했지만 15번까지 푸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과 점수가 초창기와 대동소이한 나  
 (C),(2) 낙과를 [하늘이 만든 보조개]로 MPR한 사례 (2) 지난 수요일 구기대회에서 재운의 한 박자 빠른 선수 교체

<보기>

**좌우놀이(플래툰 시스템, platoon system)**  
 좌타자가 우투수의 공을 더 잘 치고, 우타자가 좌투수의 공을 더 잘 친다는 **일반론**을 고려하여 상대 타자(투수)의 좌/우에 맞춰 타자(투수)를 교체하는 경기 운영 방법. 1990년대 라 루사 감독이 좌타자 전담용 교체투수를 두면서 대두되었다. 그러나 여러 요소의 복합적 작용을 고려해야 하는 현대야구에서는 좌/우에 따른 단순 타율이 통계적 의미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좌우놀이’에만 골몰하고 이를 고집하는 코칭스태프는 **데이터를 종합적·총체적으로 분석하기 귀찮아하는 무능한 운영자·경영자**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3. <보기>는 ㉠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글을 서술하시오.

얼마 전 읽은 [퇴사공화국]이라는 칼럼에 따르면 신입사원이 제몫을 해낼 때까지 회사가 들이는 교육비용이 1인당 연간 6000만원이라고 한다. 게다가 조기퇴사가 많아져, 기업마다 [손익분기점]을 넘길 때까지 붙잡는 것이 화두라고 한다. 그런데 조기퇴사의 사유 중 큰 것이 [직무 부적응]이다. 이는 필기 시험점수라는 획일적 수치에 의한 선발이 주원인이었다. 복합적 직무 적합성을 총체적으로 보는 전형과 문화를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지향한다면 학창시절과 청춘이 덜 낭비되지 않을까?




<조건>

- 한 가지 수치의 높고 낮음(예, 토익점수, 학점, 내신등급, 수능등급 등) 또는 한 가지 데이터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음(예, 남성이나 아니냐, 초수생/졸업예정자이나 아니냐, 30세 미만이나 아니냐, OO출신이나 아니냐 등)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거나 상황을 판단하면 논란이 생기는 사례나 상황을 하나만 제시하시오.(여기 나열된 예를 활용하여도 됨)
- 제시한 사례 또는 상황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4. 자신의 희망 대학·학과·직업·진로에 도달하기까지 있는 선발·경쟁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중요시되는 수치·데이터는 무엇인지 밝히고, 자신에게 그것이 부족함에도 본인이 해당 대학·학과·직업·진로를 성취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지(있을지) 자신만의 장점(미래에 확보할 장점)을 피력해 보시오.

※ 진로미정 등의 사유로 답을 쓰기 곤란한 학생은, ㉠-㉣을 (가) 또는 (나)로 적절히 분류만 해 보세요.

- 자신의 희망 대학·학과·직업·진로: XX대학교 컴공과를 졸업하여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 굴지의 게임회사 CPO 되기
- (가)=일반적으로 중요시되는 수치·데이터: (a,d) 대입 때는 수능성적, 경력직 이직할 때는 내가 만든 게임 포트폴리오
- (나)=자신만의 장점(미래에 확보할 장점): (b,c,e) 1학년 때 한 폭넓은 독서와 칼럼 탐독, 2학년 때 수강할 000선생님의 창작 관련 방과 후 개방형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쌓은 인문학적 소양이 S/W 협업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b>칼럼 원문</b> 	<b>영화 &lt;머니볼&gt; 예고편</b> 	<b>MPR의 개념</b> 	QR코드 리딩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미보유한 학생은 인터넷 주소창에 <a href="http://winterfg.tistory.com/116">winterfg.tistory.com/116</a> 을 입력하여 들어가면 동일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	---